2학기 준비 시작하기(1학기 자료 이어받기)

필수 | 행정반 수업 | 학기교차 | 교차이수

이럴 때 쓰세요

- 1학기가 돌아가는 동안 2학기 시간표를 준비할 때.
- 2학기로 옮겼더니 메뉴가 잠겨 있거나 교육과정이 비어 있을 때.

시작 전에

- 지금 저장하지 않은 작업이 있으면 먼저 저장해 주세요.
- 시간표 만들기 학기를 옮겨도 지금 학생·선생님이 보는 학기와 1학기 확정은 그대로입니다.
- **2학기를 한 번 만들면 화면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.**

한눈에 보기

사이드바 2학기 → 띠가 뜨면 1학기 내용 가져오기 → 1-3 다른 학기에서 가져오기·확정 → 1-4 확인·확정 → 1-7 → 1-8·1-9 1학기 값 가져오기·확정 → 2학기 수강신청 → 2-3 → ③ → 4-1·4-2 → ⑤ 배포

따라하기

1 시간표 만들기 학기를 2학기로

화면 사이드바 위 학기 알약.

누를 것 2학기. 처음이면 「2026학년도 2학기 생성」 창이 뜹니다. 내용을 읽고 생성 후 이동.

확인 **사이드바의 2학기가 켜져 있습니다.**

2 무엇이 따라왔는지 알기

구분	항목
그대로 따라옴	교시 수·수업 시각·요일별 수업 수, 선생님 명단, 반과 담임, 학생 명단
비어서 시작	수강신청 안내문
안 따라옴	교육과정, 선택과목 교사풀, 4-1 규칙(배정 금지·동시·블럭), 정원, 시수표
공용	1-1·1-2·1-5·1-6 확정은 2학기를 만든 뒤에 찍거나 풀어야 두 학기에 함께 적용됨. 만들기 전 1학기 확정은 따라오지 않음

- 따라오는 것은 **2학기를 만든 그 순간의 1학기**입니다. 2학기를 일찍 만들었다면(1-3 교육과정 엑셀 올리기 등) 그 뒤 1학기에 넣은 선생님·담임·학생은 2학기에 없습니다.
- 이럴 때 화면 위에 「1학기와 다름 · 교사 N명 · …」 띠가 뜹니다(시작하기·1-2·1-4·1-8·1-9).

누를 것 띠의 1학기 내용 가져오기 → 항목 확인 → 가져오기. 이미 있는 것은 그대로이고 전출 학생은 빠집니다.

확인 **「… 가져오기 완료」 알림. 남은 차이가 없으면 띠가 사라집니다.**

- 교사 칸이 「1-4 확정 중」으로 잠겨 있으면 2학기 1-4 확정을 풀고 다시 엽니다.
- 띠에 수업시간·요일별 수업 수가 보이면 6단계에서 맞춥니다. 일부러 1학기와 다르게 둔 것이면 그대로 두기.

3 교육과정 가져오기

화면 「1-3. 교육과정」.

누를 것 `다른 학기에서 가져오기` → 「가져올 학기」에서 1학기 고르기 → `가져오기`.

확인 **「N개 가져오기 완료」. 다시 눌러도 이미 있는 것은 그대로라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.**

- 교차이수 과목은 참여 반이 비어서 옵니다. 2학기에 듣는 반을 이 화면에서 골라 주세요(교차이수 과목(1학기 미술 ↔ 2학기 음악) 운영하기).
- 학기교차로 짝지은 묶음은 가져오지 않습니다(학기교차 선택과목(한 번 신청해 1·2학기에 나눠 듣기) 운영하기).
- 2학기에서 바뀌는 과목과 시수를 고친 뒤 `확정`합니다. 이 확정이 2학기 「② 수강신청」을 엽니다.

4 선생님 명단

화면 「1-4. 교사」. 명단은 이미 따라와 있습니다(2단계 띠가 떴다면 먼저 가져오기). 바뀐 분만 고칩니다(**선생님 명단 정리하기(새로 오신 분·떠나는 분)**). 여기서 `이전 학기에서 가져오기`를 눌러도 「이미 N명이 이 학기 명단에 있어 새로 가져온 선생님 없음」이 뜨면 정상입니다.

누를 것 `확정`.

5 교사풀

화면 「1-7. 선택과목 교사풀 지정」. 가져오기 단추가 없습니다. 2학기 과목에 맞춰 다시 지정하고 `확정`합니다 (**선택과목 담당 후보(교사풀) 갖추기**).

6 시간 값

화면 「1-8. 수업시간설정」, 「1-9. 요일별 수업 수」. 값은 따라와 있지만 2학기 확정은 없습니다.

누를 것 1학기와 달라졌을 수 있으면 `1학기 값 가져오기`로 칸을 채웁니다. 저장은 아직 안 됐습니다.

누를 것 맞게 고친 뒤 `확정`. 1-9 확정은 2학기 「2-3. 분반편성」을 여는 조건입니다.

7 행정반 수업 (쓰는 학교만)

화면 「정원·폐강·운영 방식」에서 2학기 묶음의 운영 방식을 「1학기 행정반 과목 이어서」로 정하고 1학기 과목과 짝을 짓습니다.

- 1학기 쪽을 이미 적용했다면 「2-3. 분반편성」 1학기 카드의 `2학기도 적용`으로 잇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교사보다 반이 많은 과목을 행정반 수업으로 돌리기를 봐 주세요.

8 그다음 순서

- 2학기 신청을 받으면 **수강신청 열기(학생에게 공개)**·**수강신청 마감하고 결과 정리해 확정하기**, 분반은 **분반 나누고 확정하기(반 수 정하기 → 실행 → 확정 → 담임께 명단)**으로 갑니다. 선택과목이 없는 학기는 **선택과목을 받지 않는 학교 — 수강신청·분반 건너 시간표로 가기**입니다.
- 분반 뒤 「③ 시수표 작업」(**시수표(반별 담당 선생님) 채우고 확정하기 — 교과부장에게 맡기기**), 「4-1. 사전작업」과 「4-2. 시간표 조정」(**시간표 처음 만들기(사전작업 → 자동 생성 → 저장)**), 배포(**시간표 배포하고 선생님·학생에게 알리기**)로 이어집니다.
- 학생·선생님 화면을 2학기로 넘기는 일은 별도입니다(**준비한 학기를 학생·교사 화면으로 넘기기(새 학기 시작하기)**).

꼭 알아 두실 점

- **2학기 메뉴가 잠긴 것은 고장이 아닙니다.** 확정은 학기마다 따로입니다. 1-3·1-4·1-7·1-8·1-9와 그 뒤 확정은 2학기에서 다시 해야 합니다.
- **1-3이 확정돼 있으면 가져올 수 없습니다.** 2학기 1-3을 풀고 가져옵니다. 2-3 분반 결과가 있는 학년은 건너뛰고 「… 학년은 분반 편성이 이미 있어 제외」가 뜹니다.
- 수강신청 안내문은 빈칸으로 시작합니다. 1학기 마감 안내가 학생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필요하면 새로 씁니다.
- 1학기에 넣은 학생은 만들어 둔 2학기에도 들어갑니다. 그래도 빠진 학생이 있으면 띠의 `1학기 내용 가져오기`로 채웁니다. 이미 학생 화면으로 넘긴 학기는 **준비한 학기를 학생·교사 화면으로 넘기기(새 학기 시작하기)** 1단계에서 보충합니다.
- 담임은 같은 학년도라 그대로 따라옵니다. 2학기를 만든 뒤 1학기에 정한 담임은 띠로 가져옵니다.

되돌리는 방법

- 사이드바 `1학기`를 누르면 바로 1학기로 돌아갑니다. 1학기 자료와 확정은 그대로입니다.
- 2학기 자체는 지울 수 없지만 비워 둔 채 두어도 학생·선생님 화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- 가져온 교육과정 수정과 확정 풀기는 **확정 풀고 앞 단계 다시 고치기(무엇이 함께 풀리고 지워지나)**를 봐 주세요.

응용·자주 묻는 질문

- **가져왔는데 시수표 담당 선생님이 비어 있어요.** 시수표는 따라오지 않습니다. 「③ 시수표 작업」에서 2학기 담당을 다시 넣습니다(**시수표(반별 담당 선생님) 채우고 확정하기 — 교과부장에게 맡기기**).
- **1학기와 2학기 신청을 한 번에 받았어요.** 1·2학기 수강신청 한 번에 받기를 봐 주세요. 그래도 위의 교육과정과 확정은 2학기에서 해야 합니다.
- **2학기 준비 중에 1학기 시간표를 고쳐야 해요.** `1학기`로 옮겨 고친 뒤 다시 `2학기`로 돌아옵니다(배포한 시간표 고쳐 다시 내보내기(예전 버전으로 되돌리기 포함)).